

“利他 실현 의지 발명의 힘”

산문박의 禱

한국발명학회 신석균 회장



“발명은 미래학입니다. 인류의 보다 나은 창조적 삶을 위한 작업이지요.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진리의 은혜를 베풀었고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한국의 에디슨”이라 불리는 발명가 신석균회장(한국발명학회 67세).

시인이자 화가와 같은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발명가는 이 세상 모든 사물을 창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보다 아름답게 보다 효율적으로 더욱더 멋진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 맥으로 통한다. 시인은 시 발명가이고 화가는 그림 발명가이다. 발명가는 발명으로 시를 쓰고 발명으로 그림도 그린다. 그야말로 회통(會通)이다.

신회장은 이러한 회통의 삶을 발명이라는 이름의 예술작업과 함께 해왔다.

학, 의학 등 15개 분야에서 3천7백여종에 이르는 발명을 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유의 1회용 종이팩, 자동응답전화기에 내장된 반복녹음테이프, 등산·낚시때 쓰는 태양열 라디오모자, 위조지폐감식기, 수면학습기, 태양전지, 바이오리듬 컴퓨터 등 그의 발명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 많은 발명으로 신회장은 세계발명대회에서 80여회에 걸쳐 대상, 금상 등의 상을 수상했으며 특히 미국국제 에디슨상과 세계전재회의에서 받은 네번의 상으로 그는 현재최호를 받기도 했다.

고회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회장은 “사람은 나이에 살지 않고 정신에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같은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직업과 취미와 그를 둘러싼 모든 것들에 얼마나 애착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삶을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눈으로

“행복찾는 수단이죠”... 수첩엔 아이디어로 가득 “인류는 발명 거듭하면서 다음 세대 향해 진보” 위폐 감식기·종이 우유팩 등 3700여종 ‘세상에’

그의 연구실 벽면을 꼭 채운 특허증과 실용신안증, 그리고 각종대회에서 수상한 상장, 구석구석 발명가의 흔적을 보여주는 잡다한 발명품들과 수십 년 발명생활의 손때가 묻은 빛바랜 서적들이 오직 발명과 함께 해온 그의 집념 어린 삶을 말없이 대변하고 있다.

신회장은 그가 발명한 발명품의 권위로 인해 국내보다 오히려 국외에서 더 유명한 세계적인 발명가다.

“인류의 역사는 발명의 역사입니다. 정치, 경제, 역사 그 어느것 하나도 발명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공존하는 속에서 인류의 삶은 발명의 발명을 거듭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해 진보하는 것이지요.”

그렇다. 인간의 삶 또한 각각의 개체가 모여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내고 또 그 새로운 하나는 그 다음의 또다른 하나를 이끌어내고 서로 다르면서도 하나가 된다. 우리의 삶은 바로 그 자체가 발명의 연장선이다.

신회장은 지난 50여년간 그 각기 다른 삶의 형태인 전기, 전자, 식품, 과

로 바라보고 그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노력과 힘이 필요함이다. 그런 점에서 애착은 집착과는 다른 겁니다. 애착은 바로 발명일 수 있지요.”

불교의 가르침이 그렇듯이 신회장 역시 육신의 나이를 초월했다. 창조적인 사고와 보다 나은 삶을 향한 노력은 그를 늘 새로운 발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감로수와 같은 것이었다.

지난 90년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품 전시회에서 금상을 받은 위조지폐만능 감식기는 신씨의 발명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신회장이 이 위조지폐감식기를 착안하게 된 것은 지난 79년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품 전시대회에 처음 참석했을 때.

“은행에서 달러를 바꾸는데 은행원이 일일이 위폐여부를 대조하고 나서야 돈을 주더군요. 이들이 바뀌면 돈이 진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도 나고...”

신회장은 이때부터 기존의 감식기를 수직, 이를 모조리 뜯어보고 그 성능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감식기의 부품덩어리라도 구해볼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전국의 고물상이란 고물상은 살살이 꿰었다. 또 국제대회에 나갈때면 여김 없이 그 나라의 중고부품시장을 순례, 구할 수 있는 데 까지 감식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와함께 각국의 화폐도 모으기 시작해 60개국의 화폐제작비밀을 푸는데 몰두했다. 지폐를 수집하기 위해 신회장은 국내 은행 가운데 안 기본 은행이 없다.

온갖 실험으로 천신만고 끝에 화폐의 지질과 화학조성 및 제작양호를 푸는데 성공한 신회장은 연구시작 11년 만인 90년 스위스 제네바대회에 이 위조지폐만능감식기를 출품, 마침내 금상을 받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작은 생활의 한부분에서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 내고야 마는 신회장의 모습은 어릴적 그림이 가득한 세계위인전에서 보던 그 에디슨의 모습과도 닮아있는 듯 하다.

날마다 그는 지금도 하루에 한가지

씩 발명을 해내고 있다. 그의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는 그의 양복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손바닥크기의 수첩을 보면 곧 사실임을 알 수 있다. 깨알같은 글씨와 함께 복잡한 그림들이 그려져있는 이 수첩은 신회장이 사물을 접할 때 번뜩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일일 1건 주’로 기록하는 발명일기다.

“하루 한건 발명이 제 원칙입니다. 발명일기를 채우지 못하면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일주일엔 1건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정부에서 발간하는 하루 다섯권의 특허공보를 모두 읽는다. 그의 발명은 그것을 꼼꼼히 읽고, 생활 곳곳에 널려 있는 발명의 아이디어를 자기것으로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같은 많은 발명에도 불구하고 신회장은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다. 자신의 발명품을 자신이 직접 기업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명을 직접 기업화시킨다면 그 한가지에만 국한되어 개인적인 연구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오로지 순수하게 발명에 전념하는 발명이 신석균의 원칙입니다.”라고 말하는 신석균회장.

오늘도 발명을 위해 연구실에 앉은 그가 발명한 최고의 작품은 다름아닌 민간의 행복을 기원하는 인간에 대한 자비심 그 자체가 아닐까.

성불 못하면 계속 윤회하니

문 세가지를 묻습니다.

① 윤회에 대하여: 전생의 선업이 금생의 선과로, 금생의 악업이 내생의 악과로 나타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의 글을 보니까 ‘불교는 궁극적으로 윤회를 끊고 따라서 전생과 후생을 영원히 단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불못한 사람은 계속 윤회하는 것이지요.

② 연기법에 대하여: ‘생이 있기에老死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생은 유가 있기에 있다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 생이 어떤 인연으로 생긴 것인지를 대조하면서 말씀해주십시오.

③ 천도에 대하여: 불교에선 사람이 죽으면 49재를 지냅니다. 죽은사람의 식이 49일이 지나면 현재의 업을 이유로 하여 갈 곳으로 간다는 뜻인줄 압니다. 그런데 49재 이후도 천도재를 합니다. 이미 환생했을 영혼을 위한 천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김보문·경기 인양시 호계동)

우리가 육신을 지닌 한 생명체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정혈을 받아 몸통이를 만들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과 업식이 계함됨으로써 태어나게 되는데 바로 영원한 생명이 곧 불상이요 진여요 본래면목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참성품을 깨닫지 못하기에 업식을 나의 근본바탕이라고 생각해서 윤회하는 주체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누누히 깨닫기를 강조하신 참성품의 자리에서 보면 선과나 악과나 하는 것과 육도윤회라는 게 다 업식의 높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윤회의 주체는 없다 하겠는데 또 업식의 작용이 있으니 윤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마음의 정체를 깨달으신다면 본래로 몸물지 않고 나지도 죽지도 않는 참성품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가면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윤회하는냐 않는냐의 의문도 저절로 풀리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또는 그 반대로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는 근본도리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지 상 상 탐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시고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탐은 조계종 한양선원 대령스님에게 묻고 답을 통해서 편집자가 정리·재제해 줍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세가지 질문이 다 같은 얘기이니 한 묶음에 말씀드리지요.

지은대로 받고 뿌린대로 거두는 것은 철칙입니다. 거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업은 선과를 낳고 악업은 악과를 낳지요.

그런데 중생의 성품은 본래 청정하고 밝아서 그대로 여여하니 더럽다 깨끗하다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처될 자격을 갖고 있다 하는 것도 다 그렇입니다. 그렇게 불성의 자리에서 보면 너 나의 구별이 없이 평등하여 일체가 둘이 아닙니다. 내가 전체요 전체가 나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따로 나다 너다 할 주체가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 윤회의 주체인들 있겠습니까? 된가 영혼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과보 받고 그것이 윤회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무릇 모든 상을 다 허망한 것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색과 공을 둘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분들에게 ‘주인공을 믿고 주인공에 일체를 놓아라’ 할 때의 주인공은 내 주인공 네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전체 한 마음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실체로서의 주인공이 아닌 이름의 주인공이요 공(空)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렇다면 악업 선업은 누가 짓고 악과 선과는 누가 받느냐고 할테지만 그것은 다 무명·집착이 낳는 업식의 작용일 뿐입니다.

그러니 생이라는 시작이 있으므로 노사라는 끝이 있는 것입니다. 생도 그렇습니다. 한 생각 일어나니 집착이 생기고 그 집착이 생을 낳게 했지요.

부처님께서는 무시이래로, 즉 시작을 말할 수 없는 무명이 시작되면서 유가 있고 생이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고로 생이 없으면 유가 없고 유가 없으면 궁극엔 무명이 없고 무명이 없으면 그대로 여여하고 물들지 않는 구경열반이라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자꾸 형상의 세계를 떠올리시는 모양인데 형상을 여의고 마음의 세계에서 자신의 근본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참구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영혼의 자신을 있게한 근본자리, 주인공에 일체를 놓고 말기라 하는 것은 한 생각 들고 도는 윤회의 굴레를 따라가지 말고 본래 물물지 않고 나지도 죽지도 않는 참성품을 믿고 귀의하라는 것입니다.

천도재에 대해서는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단란 그것은 돌아가신 분이 생전의 의식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으로 통신해서 법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49재는 꼭 49일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49일이면 누구나 과보를 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한 순간이 49일일 동시에 전체 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천도재는 의식의 문제를 떠나 영가의 마음을 보는데 달려 있습니다. 천도재나 49재 형식으로 보면 한번했는데 왜 또하느냐 하겠지만 마음으로 보면 다르지요. 여러분 자신도 법문을 한 번 듣고 깨우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은자 기자

활성탄 쌀은 밥맛이 다릅니다.

활성탄 농법으로 생산된 쌀에는 농약과 제초제의 독성분이 남아 있지 않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특이한 쌀입니다.

옛날 햅쌀밥을 먹으면서 느낄 수 있었던 고소한 맛과 향의 미각을 통해 활성탄 쌀의 진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광복회 활성탄 농법 연구회는 생명으로의 농업, 생명으로서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생산된 쌀의 양이 많지 않아 백화점과 미곡 상회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고 직매장으로 신청하신 분에 한해 택배를 해드립니다.

활성탄 쌀을 구입하시면 물 사랑 땅 사랑의 환경 운동과 농촌 살리기 운동에 참여하는 사랑의 실천도 됩니다.

(사)광복회 활성탄 농법 연구회
전화 : 553-0089
558-0049
448-6562
512-6077

매일 읽고 쓰면 매일 쑥쑥 기억되는 每日漢文

漢字를 모르는 고통에서 벗어나는길

주요내용 : 한자의 기본회과 변에서부터 옥편사용법, 한자의 역사, 한자 방정식 同子異音, 同子異調 등 단계적으로 쉽게 익힐수 있도록 편집

※ 一日一을 오늘의 강좌 생활인의 좌우명, 고사성서, 토막상식, 고전의 세계 등

국어사전속에 한자로 된 우리말이 70%

주문 : 교재대금 10,000을 입금시키면 즉시우송 안내 해드립니다.

국민은행 067-21-0710-091 안용식
상담전화 448-6562
한넛다비드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태아가 임파의 뱃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혈,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항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항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튀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있다.	()
18. 당노와임상성으로통한다.	()

3가지 이상 관련되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